

에덴동지

2005.8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에덴하우스



에덴의 단골 손님들 -
이제는 에덴의 한가족들이죠,
전해진 요일이 되면 기다려지는 얼굴들,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을
보면 우리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 같죠,
우리 에덴가족들이 환하게 웃어주는
인사로 그 고마움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차례

3 발행인 인사

4 생명의 말씀

6 격려사 | 빅강수 연세대경영대학원 총동창회장

8 특집 | 에덴복지재단 수익사업부

10 아름다운 삶 | 히태성 이코디인 자원봉사선생님

11 가족이야기 | 조현우 이민경 인빈니

12 에덴소식

15 고맙습니다

에덴동지 2005년8월호, 격월간

발행인 정덕환

발행처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 에덴하우스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신촌리345

전화 031.946.7030 / 팩스 031.946.7035

홈페이지 www.edenwelfare.org



에덴이 드리는 선물

에덴 하우스
원장 정덕환



7월의 한여름입니다.
에덴의 모든 가족들 건강하시죠?

이제는 날씨가 무덥거나 추울 때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함께 일하며 생활하는 장애인 근로자 가족들과 종사자들도 있지만,
매주마다 에덴을 찾아오시는 자원봉사자님들의 모습을 보면 절로
존경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자원봉사자님은 에덴의 한가족입니다.

4, 5년 이상을 한결같이 장애인가족들과 함께 해주는 분들,
이제는 에덴 가족들의 소식을 먼저 궁금해하고 일일히 챙겨주시는
마음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자원봉사라고 하면 어렵거나 거창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한번 오게되면 다음부터는 스스로 솔선하여 나서게 될 것입니다.

내 작은 손길이라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한 나보다 신체적, 환경적 여건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 장애인들이 불평 없이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해내는 모습을 보면

자신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장애인 가족들이 봉사자님들께 보답하는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파주의 들판도 뜨거운 별 아래서 푸르게 푸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도 별과 바람, 비가 다 소중하듯, 우리도 한사람, 한사람 다 소중하며
또한 함께 협력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일 것입니다.

우리 에덴을 기억하고 찾아오시는 모든 분께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등지>를 통해 에덴 가족들의 따뜻한 마음들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름 내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에덴선교회
목사 이순덕

나의 사랑하는 자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아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지 거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회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
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아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지 비위 틀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너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길
때에 돌아와서 베드르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이어라 (이가서 2:10-17)

성경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하나님의 은사는 구석구석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소돔과 고모리는 유흥불로 멸망되기 직전에 천사가 나타나 롯의 식구들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외치므로 죄에서 멸망될 백성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악된 세상이 홍수로 멸망되기 직전 노아가 그의 식구들에게 방주를 향하여 일어나 함께 가지고 외쳤던 소리였습니다. 또 모세가 그의 백성 200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짓고 꿀이 흐르는 땅으로 향하여 일어나서 함께 가지고 외쳤던 절규이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도 들려주시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미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다가가시 고기를 배에 가득차게 만드시고 놀리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돈을 많이 벌라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일어나서 함께 가지는 음성은 2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 ① 재림의 주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음성이며
- ② 주님과 밀어낸 상도를 다시 찾으시는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는데 오는 음성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고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왜 우리를 부르시며 어떻게 떠러기야 하는지 생각하여 봅시다.

첫째 :

삶의 거울이 끝났음을 알려줌으로, 일어나서 함께 가야 합니다.(10-11)
본문에서 거울이 지나가고 불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거울은 죽은 게질입니다. 고생스럽고 움츠리며 쉬는 게질입니다. 이 거울에는 찬서리기 내리는 고통과 고난을 연상케합니다. 상도가 주님 품안에 기할 때 이 거울은 지나가고 불동산의 삶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 ① 병고의 겨울이 지났다고 말해야 합니다. 주님은 치료의 주님이십니다. 심령의 병, 마음의 병, 생활과 삶의 병과 육체의 병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 ② 시인의 겨울이 지났음을 믿고 시인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되어 가며 국내외적으로 무수히 어려워져가는 경제상황을 우리가 보게됩니다. 하나님께는 내기 아무리 어려워도 나와 함께 히리리 책임지리 라는 음성이 있습니다. 실패와 침체의 겨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축복하시는 불의 꽃동산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 ③ 심령의 겨울도 지났음을 믿고 시인이야 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온갖 고통이 지나가고 주의 평화가 넘치는 축복이 임재함을 말합니다. 이 귀한 축복은 상도의 유일한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의 발견이 열리는 것)

둘째 :

작은 여우를 잡고 일어나서 신랑과 함께 가야 합니다. 작은 여우는 포도원을 헤치고 다니며 결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우는 성질이 교활하고 변회무쌍하며 외식적이러 주님과 상도의 사랑을 파괴합니다.

- ① 죄의 여우입니다. 조그마한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여호와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요 귀기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이너리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도다"고 했습니다. 조그마한 죄의 여우가 행복의 포도원을 허무는 것입니다. 나를 죄짓게 하는 작은 여우를 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 ② 부정적이고 비신앙적인 사고의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인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벽에 부딪혔다, 할 수 없다 등 이런 생각과 이런말들은 일을 망치는 작은 여우입니다. 이런 여우가 자리 잡고 있는 한 결코 우리의 일이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 ③ 미움의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의 마음이 일어날 때 모든 일을 망치게 됩니다.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다 사랑하고, 다 용서하고, 다 포용해야 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사랑이 뜻하는 일이기에 할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셋째 :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서 책임지시니 일어나서 함께 가야 합니다. 주님은 주의 백성을 절대로 혼자 버려두지 않습니다. 함께 가지고 강조하심은 언제나 동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영광과 부요를 따리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러라 불지이다 내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행하여 일어나서 함께 가지고 권면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침체와 낙심과 좌절의 늪에서 새로운 삶의 이정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창회장 박강수

하나님의 선택된 아들 정덕환님

불인불승(不認不勝)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지 못하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참아야 되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을 정확히 답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참는 것이 결국은 이긴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화가 난다고 상대방에게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다 퍼붓고나면 속은 시원할지는 몰라도 마음은 개운치 않습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말 걸... 하는 반성이 마음에 금세 퍼집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과 기업을 끝없는 경쟁이나 전쟁터처럼 비유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업도 전쟁과 평화의 공존상태입니다. 기업이 끝없는 경쟁속에서 전쟁터처럼 싸워서 얻는 이익보다 기업과 기업끼리 협력하고 협동하는 평화스러운 속에서 기업의 이익은 더욱 증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공과 승리도 온유하고 오래 참는 자의 몫입니다. 여기 온유하며 참는 것을 뜻으로 알고 살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 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베풀며 노력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는 훌륭한 연세인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분을 하나님에게서 선택된 귀한 아들로 존경하고 항상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에덴복지재단을 이끌어가는 정덕환님입니다. 그 분이야말로 불인불승(不認不勝)의 산 증인입니다. 그 분 곁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도 정덕환님이 지금처럼 그 뜻을 변치 말고, 장애인들의 위대한 아버지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주시기를 빌며, 또한 에덴복지재단의 앞날의 번영과 장애인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인사를 대신합니다. (전 배재대 총장)

